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굿디자인

1주차	일시	4월 6일 18 : 00 상상베이스 회의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지우(2553070)	○
		박민소(2553050)	○
	이예인(2511054)	○	
진도	도서명: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진도페이지: 11p. ~ 79p.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이예인, 박민소, 차종휘 교수님, 이지우]</p> <p>이지우: <디자인 그리고 설계> 챕터를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디자인'을 여행의 과정에 비유한 내용이었다. 큰 틀, 표목 안에서 세부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구체화하며 설계를 완성해 나간다는 점에서 여디자인은 결과물만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과정의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을 설계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p> <p>작가는 '디자인'을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읽으며 나는 공간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과 공간 사이의 연결과 흐름이라고 생각했다. 주거 공간이나 상업 공간 모두 결국 사용자를 위한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과정과 같다고 느꼈다.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해 필요한 공간은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불편하거나 불필요한 요소는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디자인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회와 현실 속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라는 점도 인상 깊었다. 기능과 미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p>		


<p>1주차</p>	<p>토론 내용</p>	<p>박민소: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디자인이 단순히 보기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이라는 점이였다. 이전에는 디자인을 주로 시각적인 요소로만 생각했지만, 이 책을 통해 공간의 흐름과 사람들의 행동, 감정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건축과 설계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험을 설계하는 일이라는 부분이 기억에 남았다. 또한 좋은 디자인은 화려함보다 사람에 대한 공감과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점도 인상 깊었다. 같은 공간이라도 사용자의 동선과 편안함을 얼마나 고려했는지에 따라 느껴지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이번 독서를 통해 디자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는 인문학적인 작업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p> <p>이예인: 디자인은 단순히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전까지는 '디자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단순히 미학적인 부분만 떠올랐는데, 이 책을 읽으며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다. 좋은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사람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설계'라는 행위 역시 단순한 기획과 제작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느꼈다. 건물을 설계할 때는 내부 공간의 구성도 중요하지만 주변 자연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지가 핵심이라고 생각되었다. 또한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감정의 교류에 있다. 많은 이들이 머무르고 스쳐 지나가는 공간인 만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p> <p>차종휘 교수님: 교수님께서서는 디자인은 철학적인 사고와 인문학적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하셨다. 결국 사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디자인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표현 방식과 형태를 사용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셨다. 또한, 최근에는 ESG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돈과 소비를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를 통해 디자인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 혹은 개인의 창의성만을 드러내는 작업이 아니라, 사회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p>
------------	--------------	---

2주차	일시	4월 13일 18 : 00 상상베이스 회의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지우(2553070)	O
		박민소(2553050)	O
	이예인(2511054)	O	
진도	도서명: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진도페이지: 80p. ~ 133p.	
토론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좌측부터 이지우, 차종휘 교수님, 박민소, 이예인]</p> <p>이지우: <디자인 그리고 설계> 챕터 후반부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였다. 책에서는 비교, 모방, 응용, 변형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떻게 창의성을 끌어낼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은 기존의 것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새롭게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기존의 디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이해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책에서는 완벽한 디자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디자인은 끝이 없다고 설명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와 환경,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디자인 역시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발전해야 한다. 디자인에 정답이 없지만,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방법을 탐구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 동시에 사람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부분까지 고려하고, 고민하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p>		

<p>2주차</p>	<p>토론 내용</p>	<p>박민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디자인이 단순히 결과물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각하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이었다. 특히 비교, 모방, 응용과 같은 방법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내용이 흥미로웠다. 이를 통해 창의성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디자인에는 완벽한 정답이 없으며, 사람들의 삶과 환경에 맞춰 계속 변화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에 남았다. 이번 독서를 통해 디자인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p> <p>이예인: 책에서 디자인은 모든 사람에게 미래의 환경에도 사용될 수 있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내용으로 만드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이것이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디자인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 전체를 말하며, 이런 행위에는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디자인은 글을 쓰는 것처럼 생각을 그리면서 답을 찾아가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대목은 디자인에 대한 나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비전공자 입장에서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누구라도 도전할 수 있는 일이라는 용기를 얻었다. 결국 디자인이란 책의 표현처럼 재미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자 내가 가진 생각을 끊임없이 가다듬고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p> <p>차종휘 교수님: 교수님께서서는 디자인을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위한 산업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사람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자연의 환경을 함께 고려하며 만들어지는 디자인이 진정한 디자인이라고 강조하셨다. 또한 건축과 공간은 단순한 기능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이 느끼는 감상과 경험까지 중요하다고 설명하셨다. 책에서 말한 것과 같이 디자인의 과정은 소설과도 비슷해서 비교, 모방, 응용, 변형과 같은 과정을 통해 기존의 것을 깊이 이해하고 새롭게 발전시키는 과정이며, 끊임없이 수정되고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p>
------------	--------------	---

3주차	일시	5월 11일 13 : 00 상상관 2층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지우(2553070)	○
		박민소(2553050)	○
		이예인(2511054)	○
진도	도서명: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진도페이지:	137p. ~ 176p.
	 <p>[좌측부터 박민소, 이예인, 이지우]</p> <p>토론 내용</p> <p>이지우: <창의란 무엇인가?> 챕터 초반에서는 '왜 사람은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 인간은 본래 호기심이 있고, 탐구에 대한 욕구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우고 질문한다고 말한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왜 노력해야 하는지, 왜 배워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결국 지식을 더 알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공부의 원동력이 된다고 느꼈다.</p> <p>창의성은 거창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느끼는 사소한 불편함과 그것을 질문하는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디자인된 결과물이기에, 일상 속에서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주변의 모든 환경과 변화 자체를 창의적인 사고에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가장 흥미로웠다.</p> <p>시대와 환경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더욱 넓은 시각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창의성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서 것에 비롯된다.</p>		

<p>3주차</p>	<p>토론 내용</p>	<p>박민소: 창의성이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호기심과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모두 디자인된 결과물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를 보며 평소 당연하게 지나쳤던 것들에도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느꼈다. 또한 공부는 단순히 시험을 위한 암기가 아니라 더 알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호기심에서 시작된다는 점도 기억에 남았다. 나 역시 그동안 결과만을 위한 공부를 했던 적이 많았는데, 이번 내용을 통해 배우는 과정 자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결국 창의성은 거창한 아이디어보다 주변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작은 생각들을 발전시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p> <p>이예인: 해당 챕터에서는 공부의 의미를 재정의하면서 지식의 진정한 가치를 짚어낸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동안 내가 해온 공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다. 지식을 깊이 있게 습득하기보다 단순히 암기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 공부를 했던 것이 떠올랐다. 이를 계기로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p> <p>또한 책에서는 창의성이란 결코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발현된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어쩌면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스쳐 지나갔던 나의 작은 생각들이 창의적인 발상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용기가 생겼다. 모호하다는 이유로 무시해 왔던 생각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발전적인 과정으로 이끌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함을 깊이 실감했다.</p>
------------	--------------	---

4주차	일시	5월 18일 13 : 00 상상관 2층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지우(2553070)	○
		박민소(2553050)	○
		이예인(2511054)	○
진도	도서명: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진도페이지: 178p. ~ 234p.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이지우, 박민소, 이예인]</p> <p>이지우: 챗터 후반에서는 좋은 디자인의 기준과 창의적 사고의 단계에 대해 설명하며, 디자인이 기능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성과 경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은 효율과 논리를 추구하는 이성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동시에 감성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디자인에는 편리함뿐만 아니라 행복감과 즐거움 등을 느끼게 하는 감각적인 요소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p> <p>디자인은 의류, 전자, 건축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큰 '산업'이며, 그만큼 명확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디자인은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업과 소통 속에서 발전한다.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논리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p> <p>창의성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며, 주변을 관찰, 분석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창작자로서 모든 결과물이 꼭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작은 호기심과 질문을 통해 사고를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p>	

4주차	토론 내용	<p>박민소: 챗터 후반부를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좋은 디자인은 단순히 기능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경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사람은 편리함만을 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즐거움과 편안함 같은 감성적인 요소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디자인 역시 이러한 부분까지 담아내야 한다고 느꼈다. 또한 디자인은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업 속에서 발전한다는 점도 기억에 남았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결국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의성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주변의 문화와 변화를 관심 있게 관찰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p> <p>이예인: 책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연계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대목에 크게 공감했다. 책에서는 찻집을 예시로 들며 실내 분위기가 기후나 계절의 변화, 머무르는 손님들, 음악 등에 의해 끊임없이 변한다고 말한다. 진정한 디자인이란 바로 이러한 흐름과 변화를 기민하게 이해하는 작업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지되어 있지 않고 매 순간 변화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세심하게 감지하고 창의성을 발휘해 새로운 가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디자인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p>
-----	-------	---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이지우 (2553070)	<p><디자인 크리에이티브>는 ‘디자인’을 결과물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바라보게 해주었다. 디자인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닌 일상 속에서 작은 호기심을 가진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변화하는 주변 환경을 잘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행동을 욱더 세심하게 관찰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앞으로 어떤 방향의 디자인을 해야 할지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어떤 태도와 방법으로 디자인에 접근해야 하는지 깊이 배울 수 있었다. ‘좋은 디자인’이란 사람과 환경, 그리고 시대의 흐름까지 함께 고려하며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p>
	2	박민소 (2553050)	<p>이번 독서토론 활동을 통해 디자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디자인을 단순히 미적인 결과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책과 토론을 통해 사람과 사회, 환경까지 함께 고려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팀원들과 다양한 생각을 나누며 같은 내용을 읽어도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고, 디자인 역시 소통과 공감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활동을 통해 앞으로 사람을 위한 디자인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p>
	3	이예인 (2511054)	<p><디자인 크리에이티브>를 읽으면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디자인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전까지는 전공자들만이 하는 특별하고 미학적인 예술 행동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작은 생각을 바탕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임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배움은 좋은 디자인에 대한 깨달음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변화와 사람들, 더불어 자연환경까지 조화롭게 고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좋은 디자인임을 알게 되었다.</p>